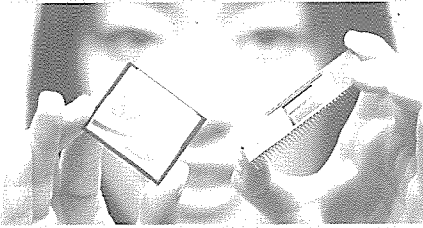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테라 시대' 이끈다



이번 삼성전자가 발표한 신기술 '차지 트랩 플래시(CTF)'는 한계로 여겨졌던 40나노 벽을 깨면서, 차세대 낸드플래시가 최소한 테라비트시대까지는 용량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쾌거다. 이미 7년 연속 '황의 법칙'을 실증해 보인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 대용량 메모리시장 전략의 한 축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이와 함께 발표한 초대용량 차차세대메모리 512Mb P램은 비교적 작은 용량 시장, 즉 기존 노어플래시가 잡고 있는 휴대폰·모바일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512Mb P램을 2008년부터 본격 양산한다. 이는 P램에도 '황의 법칙'이 본격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작년 세계 최초로 256Mb P램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에는 512Mb, 2007년 1Gb, 2008년 2Gb를 개발, 차세대 메모리인 P램에서도 매년 2배 이상 성장한다는 '황의 법칙' 실현에 도전한다.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사장은 "이제 낸드의 최대용량화는 CTF로 인해 길이 다져지고, 노어는 P램의 획기적 속도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 미래 메모리시장 전략의 핵심은 이들 두 기술(제품)이 열여가는 시장과, 기존 D램이 다져 놓은 시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스팀 트롬 알러지 케어 출시

LG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거 기능이 포함된 스팀 트롬 세탁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LG전자(대표 김쌍수)는 진드기나 애완동물 털, 꽃가루 등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스팀 트롬 알러지 케어' 기능을 장착한 스팀 트롬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9월 12일 밝혔다.



기존 세탁방식이 세균은 죽지만 진드기, 강아지 털 등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과 달리, 스팀 트롬의 알러지 케어 기능은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세탁물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제거하는 것이 특징. 세탁통 내부 온도를 세제의 단백질 분해효소가 가장 활발한 55°C~60°C로 만들어 알레르겐의 단백질 성분을 분해하고, 행굼 강도 및 횟수를 높인 강력 행굼과 고속 탈수로 알레르겐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세탁방식에 비해 잔존 알레르겐 수치를 월등히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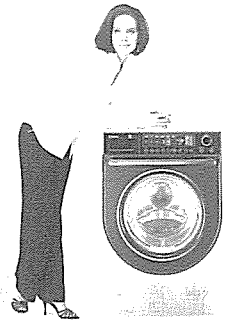
이와 별도로 아기옷 전용 세탁 기능도 채용, 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애벌 세탁을 거쳐 바로 배수함으로써 오염이 다른 세탁물에 옮겨지거나 계속 남아있는 것을 막았다.

10~13kg 용량에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알레르기 원인물질 제거 효과는 세계적 권위의 영국알레르기협회(BAF) 공인 인증을 취득했다. 가격은 170만원대.

대우일렉, 아르페지오 스타일 스팀드럼 세탁기 출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강화유리 도어를 채용한 아르페지오 스타일의 '클라쎌' 스팀드럼세탁기(모델명 DWD-E115RD)를 출시한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투톤 컬러 드럼세탁기로 상단 작동 패널부분과 도어부분에 블랙과 레드 컬러를 채용, 역동성을 강조했다. 또 전면 도어부분을 라운드형으로 디자인하고, 눈꽃 문양의 입체패턴을 적용해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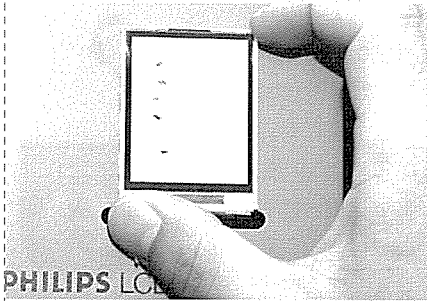
기존 드럼세탁기들이 진동 때문에 투명 ABS(플라스틱) 재질을 전면 도어부분에 사용한 것과 달리, 이 제품은 탄성강도가 높은 강화유리를 채용해 내부 세탁물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고급 오디오 제품에만 적용되는 터치 버튼과 히든버튼 다이얼을 채용해 제품의 오작동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밖에 스팀을 아래에서 위로 분사하는 대우일렉 특유의 '통스팀 세탁' 기능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제품 대비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세탁력은 물론 건조 효율도 20% 이상 향상시켰다. 용량은 세탁 11kg, 건조 6.5kg 이다.

한편 이 제품은 지난 7월에 선보인 양문형 냉장고에 이어, 아르페지오 스타일을 채용한 두 번째 제품으로 대우일렉은 앞으로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클라쎌' 브랜드 전 품목에 아르페지오 스타일을 적용할 방침이다.

**LG필립스LCD, 응답속도 36%개선  
2인치 LCD 개발**

LG필립스LCD가 휴대폰 LCD 응답속도를 기존 제품에 비해 36% 빠른 16밀리초(ms)로 구현한 2인치 LCD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DVB-H 및 와이브로, HSDPA 등 차세대 디지털이동방송 및 이동통신 환경에서 선명한 고품격 동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LG필립스LCD(대표 구분준)가 개발한 2인치 LCD(사진)의 응답속도는 16ms(1000분의 1초)로 휴대폰 LCD 한계라고 여겨지던 응답속도 20ms의 벽을 깨고 최초로 10ms대에 진입한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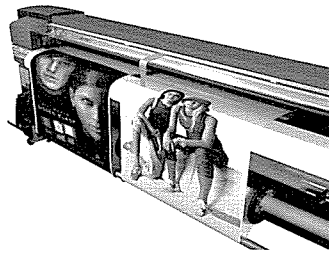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휴대폰 LCD의 최고 응답속도는 25ms 수준이다.

LG필립스LCD는 HSDPA와 와이브로 등 차세대 이동통신이 제공하는 고성능 동영상을 기존의 25ms 응답속도 LCD를 이용해 시청할 경우에 영상의 끌림 현상과 같은 잔상 현상이 나타나는 등 화질 수준이 저하된다며 차세대 이동통신 환경은 응답속도 20ms 이하 LCD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HP, 100인치 대형 프린팅  
시스템 첫 선**

한국HP는 9월 14일 로우-솔벤트 잉크로 최상의 컬러를 구현해 최대 264cm·104인치의 초광폭 크기 출력물을 프린팅할 수 있는 'HP디자인젯 10000s'를 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간판 제작업체·옥외 광고 대행사·실사 출력소 등 옥외 광고와 산업용 대형 포맷



시장을 겨냥한 이 제품은 100인치 시장에 진입한 첫 제품으로 양면 인쇄가 가능하다. 장시간의 제작 작업 또는 두 가지 인쇄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이중 롤 인쇄 기능으로 생산성도 높다. 안감 없는 메시(mesh)에 직접 인쇄가 가능해 다양한 소재에 인쇄도 가능하다.

6개 개별잉크의 512 노즐과 고성능의 압전 프린트 헤드로 시간당 16m<sup>2</sup>/20 m<sup>2</sup>으로 프린팅하고 작동 중에도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 가능하다. 공기 정화 시스템을 장착하면 인쇄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다.

한국HP는 이 제품 출시를 기념해 10월 31일까지 실사 출력소를 대상으로 중고 보상 판매와 악세서리 할인판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레인콤, 초소형 MP3플레이어 출시**

레인콤은 오는 목걸이형 MP3플레이어 '아이리버 S10'을 출시한다고 9월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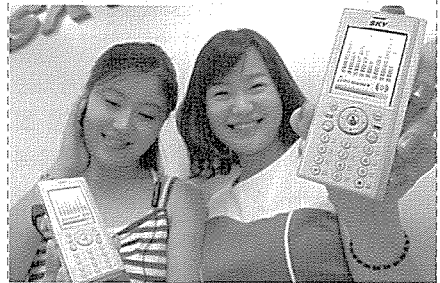
신제품은 모델명을 'Stylish'의 S에서 따와 미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목에 거는 초미니, 초박형 스타일임에도 화면의 상하 좌우 가장자리를 눌러 조작하는 다이렉트 클릭(D-click) 방식을 채택했다. 목걸이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고리를 이용해서도 쓸 수 있다.

무게는 17.5g에 불과할 정도로 작지만 1.15인치 6만5000컬러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 시간과 음악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MP3, WMA, ASF를 비롯해 OGG 파일도 지원하며 사진, 음성녹음, FM라디오 기능 등을 모두 갖췄다.

가격은 1Gb 모델이 15만9000원이며, 2Gb 모델은 19만9000원이다.

**팬택계열, 바타입 휴대폰 출시**

팬택계열이 9월 12일 MP3 전용칩을 탑재해 2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 바타입 휴대폰 'M-U130'을 40만원대에 선보였다.



강력한 줌크박스 기능을 자랑하는 이 모델은 2개의 스피커만으로 다채널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 같은 입체 음향을 구현해주는 'SRS WOW' 음장 효과를 내장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카메라와 동영상·SMS 등이 가능한 멀티태스킹 기능도 지원한다.